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교황 ‘러시아군 집단학살지’ 방문 희망”

프란치스코 교황이 러시아군의 집단학살 만행이 자행된 부차를 방문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의 안드리 유라쉬 주교황청 대사는 16일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을 논의 중”이라며 “교황이 9월 13~15일 카자흐스탄 누르스ultan에서 열리는 제7회 세계 전통 종교지도자대회에 참석하기 전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 방문 프로그램에는 부차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황은 전쟁 종식을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으나 건강 문제로 인해 구체적인 방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도심에서 15km 떨어진 부차는 러시아군이 퇴각하고 난 뒤 끔찍하게 살해된 민간인 시신 수백구가 발견돼 국제 사회의 공분을 샀던 곳이다.

‘아이자야씩스티원’ 초청 찬양집회 인랜드교회

‘인랜드교회’ (담임목사 안환, 1101 N Glen Ave, Pomona, CA 91768)가 한국의 예배 사역팀인 ‘아이자야씩스티원(Isaiah 61:1)’을 초청해 찬양 집회를 개최한다. 9월 17일(토) 오후 5시에 ‘Your Kingdom Come’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집회는 팬데믹 기간 움츠려 들었던 예배자들에게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자야씩스티원’은 ‘예배를 통한 Restore(회복), Rebuild(다시 세움), Renew(새롭게)라는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모든 세대와 열방 가운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비전 삼고, 이를 찬양으로 선포한다. 인랜드교회 청년부 담당 정산목사는 “이번 찬양 집회를 통해 각 교회에서 누리기 힘들었던 경배와 찬양의 뜨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영적으로 회복되길 소망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서부 지역의 모든 예배자들을 초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909) 622-2324



자신을 아는 것이 천국이다(마태 21, 28-32(가))

신앙의 열매를 세속의 눈으로만 본다면 참으로 ‘요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형편없이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 천당에 일찍 들어가게 하려면 열심히 경건하게 살았던 자들은 주님의 호된 꾸지람을 받아 천당문 밖에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의 주님 말씀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마태 21,31).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요 충격적인 발언입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대사제와 원로들이 도대체 창녀들만 못하며 도둑이나 세리만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어떤 부부가 서로 다툰 뒤에 저를 찾아와서 상담할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의 얘기를 들으면 여자가 나쁘다. 남자 자신에겐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얘길 들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가 나빠도 보통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자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에겐 흠이나 잘못이 없는데 왜 늘 서로 싸워야 하는 모순 속에서 몸부림쳐야 하느냐?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남의 잘못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불행의 원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유대교에서 존경받는 대사제와 원로들이 창녀나 도둑만도 못하다는 꾸지람을 하시느냐? 아주 편한 것입니다. 도둑이나 창녀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매달릴 줄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사제와 원로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당과 지



옥의 차이입니다.

남은 잘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있다면 것처럼 어리석은 불행도 없습니다. 성서에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천당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요, 자기 죄를 모르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천당에서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또는 얼마나 큰 죄를 졌느냐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십자가 옆의 강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매달려 자비를 빌었을 때 그는 이미 낙원을 약속 받았습니다(루가 23,39-43참조). 도둑이었던 세리도 자신이 부정직하고 욕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했을 때 그는 이미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람은 자신의 공로는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믿음이 없고 사랑이 부족하며 용서가 없었고 그리고 이웃을 너무도 무시했던 자신을 몰랐습니다. 그

래서 불행했습니다(루가 18,9-14참조).

옛날 어떤 임금이 교도소를 순시하게 되었는데 그때 죄수들이 임금에게 자신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그때 임금은 그러냐고 하면서 그들을 동정해 주었는데 마지막 한 사람만은 아무 말도 못하고 훌쩍 훌쩍 울고 있더군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 보니 자기는 죄가 많아서 임금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처지라고 한탄하더군요. 이때 왕이 신하들에게 그랬답니다. 이곳에 죄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인데 왜 죄인을 이곳에 들여보냈느냐고. 그래서 그 죄인은 그 날로 석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흔한 말로 ‘주제 파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제 파악이 안 되면 아주 괴곤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잘못이나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죄만은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를 하시고 싶어도 계속 감추고 숨기고 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합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창녀만도 못하고 도둑만도 못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어찌보면 어리석은 삶입니다. 첫째가 풀찌 되고 풀찌가 첫째 된다는 말씀은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이 없습니다. 따라서 남의 허물을 보기에 앞서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 보도록 합시다. 이것이 잘 살고 잘 믿는 길입니다.

-강길웅 신부-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숨은그림찾기 정답